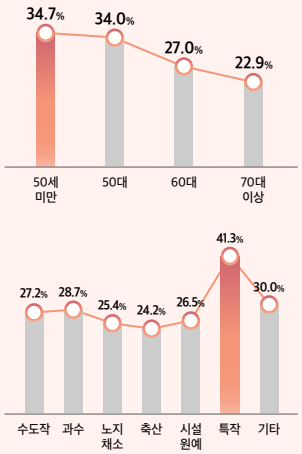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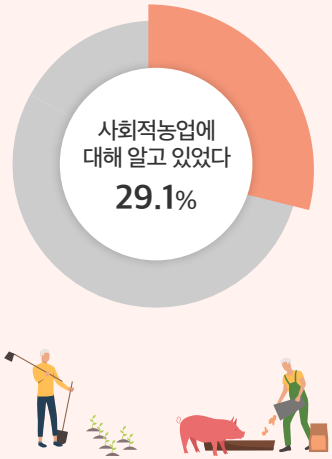
사회적농업 관련 농업인 의식 조사 결과

조사방식 : 온라인조사(이메일, 핸드폰)
조사기간 : 2022년 10월 19일 ~ 10월 25일
응 답 률 : 1,006건(약 61%)

'사회적농업' 인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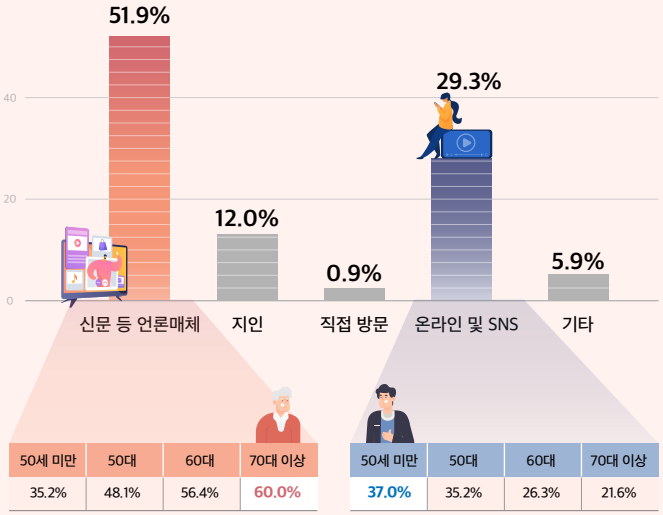
단위 : %





'사회적농업' 인지 경로

단위 :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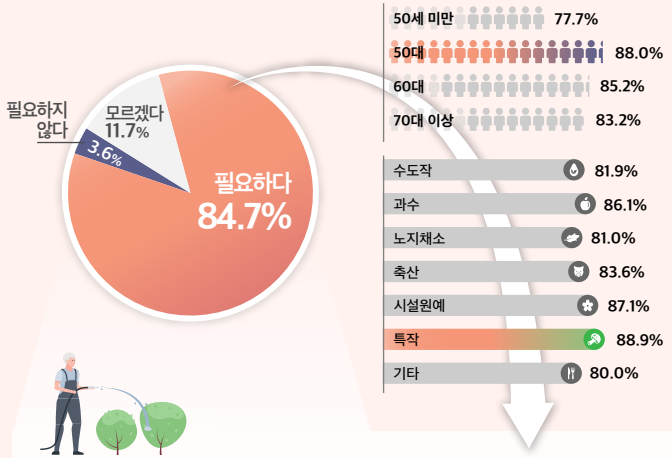


50세 미만	50대	60대	70대 이상
35.2%	48.1%	56.4%	60.0%

50세 미만	50대	60대	70대 이상
37.0%	35.2%	26.3%	2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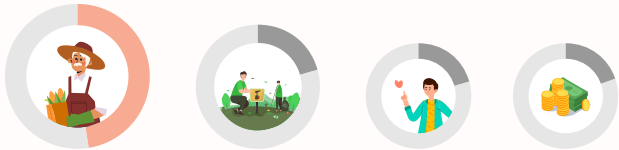
'사회적농업' 필요성

단위 : %



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'사회적농업' 필요한 이유

단위 : %



47.3%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농촌생활 적응도를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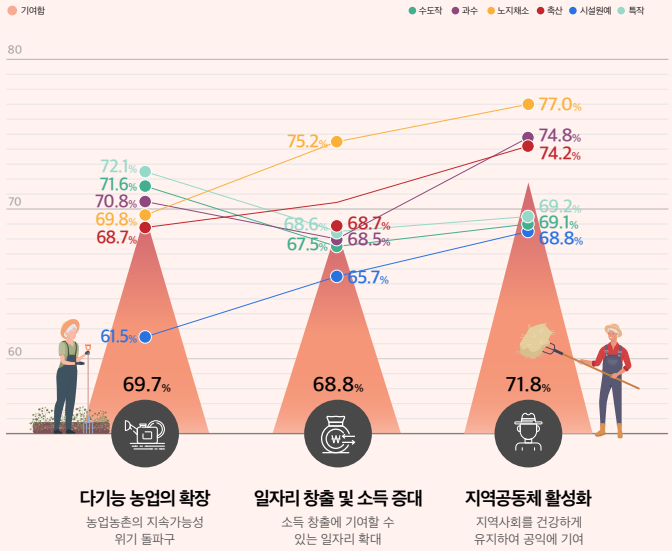
20.8% 사회적 농업을 다기능 농업 (또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)의 일환이므로

16.5% 치유농업을 포함해 정부, 민간단체 등의 사회농업에 관한 관심 확대

15.4% 농업인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므로

'사회적농업' 기여도

'기타' 삭제, 단위 : %



'사회적농업' 관련 의견별 동의율

단위 : %

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려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**86.8%**

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**79.5%**

농가, 단체,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협력 관계를 맺어 실천해야 한다 **78.0%**

농업 또는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형태의 농업 실천을 사회적농업이라고 폭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5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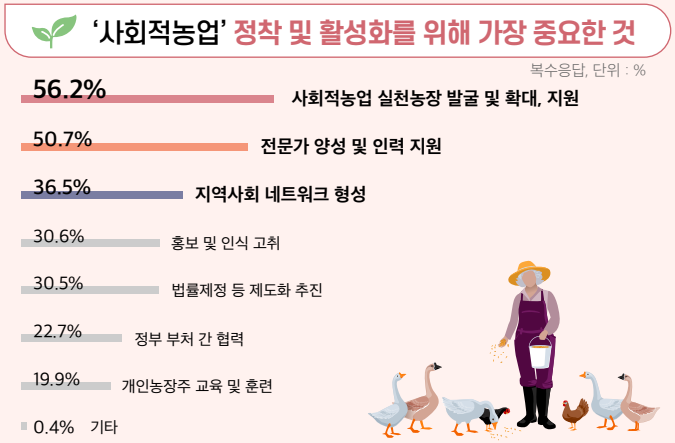
사회적농업은 취약계층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수단이 될 것이다 66.0%

사회적농업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이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농업 실천으로서 돌봄농업, 노동통합(일자리 제공)농업, 교육(직업훈련) 농업의 분야에 국한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65.5%

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는 농가여야 한다 61.0%

사회적 농업을 실천함에 있어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57.9%

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는 요양시설, 의료시설 등의 기관이어야 한다 23.1%

'사회적농업'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

복수응답, 단위 : %